

육계 관련 동물복지 인증기준 비교

유금주^{*,**}, 천시내^{*,***}, 정지연^{*}, 김동훈^{*}, 전중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전북대학교 대학원 축산학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동물자원학과

e-mail:jeon75@korea.kr

Comparison of animal welfare standards for broiler

Geum Zoo Yoo^{*,***}, Si Nae Cheon^{*,***}, Ji Yeon Jung^{*}, Dong Hoon Kim^{*}, Jung Hwan Je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Animal Scienc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imal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국내외적으로 축산분야의 동물복지가 이슈화 되면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축산 선진국들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축산업의 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해 기존 인증기준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육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관련한 연구 자료 및 이에 대한 관심정도는 산란계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본 비교분석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의 개선방향 모색과 육계사육시설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 마련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육계 관련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기준들을 비교하였다.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육계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주요내용을 비교했을 때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각 국가별 혹은 인증기관별로 사육여건과 운영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한 인증기준의 내용 중 사육밀도, 해의 제공은 모든 인증기관에서 거의 유사했지만 급이·급수기, 깔짚 제공 및 조명밝기 등의 기준은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사육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기준 마련이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외 인증기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국내사육여건을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이라 판단된다.

1. 서론

련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기준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축산분야의 동물복지가 이슈화 되면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축산 선진국들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Merkely and Wabeck, 1975; Shanawany, 1988; Sanotra et al., 2002; Meluzzi et al., 2008 등).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의 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해 기존 인증기준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기준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육계 관

2. 본론

2.1 RSPCA의 동물복지인증

RSPC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는 영국 동물학대방지협회로 1824년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동물복지 단체이다. RSPCA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모든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친절을 도모하며 고통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동물복지인증을 가장처음 시행한 곳으로 RSPCA의 인증기준은 거의 모든 동물복지인증기준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제시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된 축산물은 그림 1의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RSPCA, 2017).

2.2 AHA의 동물복지인증

AHA (American Humane Association)는 동물, 사람뿐만 아니라 농가운영까지 인증에 포함하여 고용인의 농장운영 및 행동강령 등 책임과 역할 이해를 통하여 체계적인 농장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AHA의 동물복지인증은 체계적인 농장관리를 통하여 동물복지적 농장관리가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 인증기준에 의해 생산된 축산물은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AHA, 2019).

2.3 HFAC의 동물복지인증

HFAC (Humane Farm Animal Care)는 동물학자, 수의사 및 생산자가 협력하여 가축의 인도적 사육과 관리표준을 개발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관련한 인증프로그램은 1998년에 공식화 하였다. 가축의 보다 인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단체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인증을 통하여 일반 축산물들과 차별화 하고 있다(HFAC, 2014).

2.4 AWA의 동물복지인증

AWA (Animal Welfare Approved)는 AGW (A Greener World)에 의해 공인되는 비영리 동물복지인증 프로그램으로 AGW는 초지, 연어 및 non-GMO에 대한 인증도 함께 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을 목표로 가축에게 초지와 야외 운동장을 제공하도록 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자, 수의사와 생산자가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농장을 방문하여 기준준수를 확인한다(AWA, 2018).

2.5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인증

국내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2012년 3월 가장 먼저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양돈(2013), 육계(2014),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 오리(2016) 순으로 시행되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육계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한다.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은 국내의 사육여건을 고려하고 RSPCA

의 인증기준을 포함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증기준들을 참조하여 만들어졌다. 이 인증기준에 의해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서 그림 1과 같은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8-4호).



[그림 1] 국가별 동물복지 인증기준 표시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육계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RSPCA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육밀도, 사료급이, 음수 및 화에 대한 기준은 거의 유사했다. 이는 RSPCA의 인증기준을 참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AHA의 인증기준은 활동반경 이내 급이·급수기를 설치 할 것을 제시했지만 급이·급수기 형태 및 화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AHA는 조명밝기 기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다른 인증기준과 달리 10 lux로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깔짚의 경우 AHA는 1~2인치로 가장 많은 양의 깔짚 제공을 요구를 하고 있으며 RSPCA에서는 평균 최소5cm깊이의 깔짚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WA의 경우 축사 내부 및 외부의 사육밀도의 기준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인증기준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1).

[표 1] 육계 관련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주요내용 비교

주요 항목	동물복지 인증기준				
	RSPCA	AHA	HFAC	AWA	농림축산식품부
사육 밀도	19수/m ²	34kg/m ² 또는 7.0 lbs/ft ²	30kg/m ² 또는 6.0 lbs/ft ²	0.06m ² /수(내부) 0.18m ² /수(외부)	육계: 19수/m ² 토종닭: 9수/m ² 삼계: 35수/m ²
사료 급이	원형 33cm/65수	활동 반경 15 feet 이내 설치	활동 반경 15 feet 이내 설치	경쟁 없이 항상 먹을 수 있어야 함	육계: 원형 33cm/65수 토종닭: 원형 33cm/65수 삼계: 원형 33cm/110수
음수	니플 10수/대 컵형 28수/대 총형 100수/대	육계 활동 반경 15 feet 이내에 급수기 설치	총형 100수/대 니플 10수/대 컵형 28수/대	경쟁 없이 항상 먹을 수 있어야 함	니플 10수/대 컵형 28수/대 선형 2.5cm/수 원형 1cm/수
화	2m/1,000수	설치 해야함	2m/1,000수	flock별 7인치 화대 설치(12in)	육계: 2m/1,000수 토종닭: 2m/800수 삼계: 2m/1,700수
깔짚	평균 5cm깊이	1~2 인치	육계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달아 있어야 함	육계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달아 있어야 함	모든 바닥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함
조명	20 lux 이상	최소 10 lux	20 lux 이상	20 lux	20 lux 이상

3. 결론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각 국가별 혹은 인증기관별로 사육여건과 운영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복지에 있어 가장 중

요하게 다뤄지는 사육밀도, 화의 제공은 모든 인증기관에서 거의 유사했지만 급이·급수기, 깔짚 제공 및 조명밝기 등의 기준은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사육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기준 마련이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외 인증기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국내사육여건을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이라 판단된다.

사사

본 연구는 2020년도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과정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참고문헌

- [1] AHA, “Animal Welfare Standards for Broiler Chickens”, May 2019.
<http://www.humaneheartland.org/our-standards>
- [2] AWA, “AWA Meat Chicken Standards”, 2018.
<https://agreenerworld.org/certifications/animal-welfare-approved/standards/meat-chicken-standard/>
- [3] Meluzzi, A., Fabbri, C., Folegatti, E., Sirri, F., “Effect of less intensive rearing conditions on litter characteristics, growth performance, carcass injuries and meat quality of broiler”, Br Poultry Sci, 49(5), 509–515, 2008.
- [4] Meluzzi, A., Fabbri, C., Folegatti, E., Sirri, F., “Survey on chicken rearing conditions in Italy: effect of litter quality and stocking density on productivity, foot dermatitis and carcass injuries” Br Poultry Sci, 49(3), 257–264. 2008.
- [5] Merkely, J. W., Wabeck, C. J., “Cage density and frozen storage effect on bone strength of broilers”, Poultry Sci. 54, 1624–1627. 1975.
- [6] HFAC, “Humane Farm Animal Care Animal Care Standards CHICKENS”, August 2014.
<https://certifiedhumane.org/how-we-work/our-standards/>
- [7] Sanotra, G. S., Lund, J. D., Vestergaard, K. S., “Influence of light-dark schedules and stocking density on behavior, risk of leg problems and occurrence of chronic fear in broilers”, Br. Poult. Sci. 43, 344–354. 2002.
- [8] Shanawany, M. M., “Broiler performance under high stocking densities”, Br Poultry Sci. 29(1), 43–52. 1988.
- [9] RSPCA, “RSPCA welfare standards for MEAT CHICKENS”, July 2017.
<http://science.rspca.org.uk/sciencegroup/farmanimals/standards>
- [10]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8 - 4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